

도서관 3題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이제 우리 도서관으로 가자. 수많은 책이 구비된 도서관이 아니라 좋은 책이 있는 도서관으로.” 속표지와 차례 사이에 있는 에라스무스의 권유는 흥미로운 전주(前奏)로 보인다. 그러나 이탈리아의 고전철학자 루치아노 칸포라를 쫓아 『사라진 도서관』(김효정 옮김, 열린책들, 2007)의 흔적을 찾아나서는 발걸음은 그리 가볍지 못하다. 200쪽이 안되는 분량이지만 잘게 나뉜 내용의 난이도가 여간 아니다. 상상력이 발휘된 도서관 스케치와 이 “도서관에 관한 출전율” 잇댄 구성 또한 어려움을 더한다.



최 성 일
출판평론가
robli@freechal.com

『사라진 도서관』은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다. “이 도서관(바물관)의 건립은 프톨레마이오스 소테르에서 시작되었고, 그의 아들 프톨레마이오스 필라델포스(기원전 308~246)가 막대한 비용을 들여 전 세계의 책을 수집했다. 세상의 모든 책들을 다 모아 알렉산드리아를 ‘학문과 지식의 보고’로 만들겠다는 의도였다. 그리하여 기원전 3세기경 알렉산드리아는 학문의 중심지가 되며, 수집한 책은 무려 70만 권에 이르게 된다.” (‘울긴이의 말’에서)

발전을 거듭하던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은 세 가지 원인으로 말미암아 역사 속에서 사라진다. 첫째가 카이사르와 아킬라스의 전쟁 중 발생한 화재로 왕궁의 도서관에 있던 두루마리들이 불타 없어졌다. 둘째는 서기 389년 이교도들의 사원을 모두 파괴하라는 로마 제국의 황제 테오도시우스의 명을 받은 알렉산드리아의 주교 테오필루스에 의해 세라피스 사원 내부의 도서관이 파괴되었다. 그리고 이슬람 군대의

대장 암르가 술탄의 명을 받아 도서관의 책을 모두 불태운다.

칸포라는 분서(焚書)를 기독교화 과정의 일부로 본다. “파괴, 전화(戰禍), 약탈, 화재 때문에 권력의 중심부에 있었던, 대도서관이 특히 타격을 받았다. 비잔티움의 도서관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러므로 마지막까지 남은 책은 대도시에 있었던 것들이 아니라 ‘부차적인’ 장소(수도원)에 있었던 것이나 산재해 있던 개인의 필사본이었다.”



도서관 사상가

『위대한 도서관 사상가들』(이병목 편, 고인철 외 지음, 한울, 2005)은 연세대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2001년 2학기 박사과정 교과목으로 개설된 ‘도서관 사상사’ 수강생들의 글을 모은 『도서관 사상사 논고집』을 일부 보완하고 수정하여 펴낸 책이다. ‘도서관 사상사’ 수업의 담당교수가 선정한 세계의 주요 도서관 사상가 12명의 생애와 사상, 업적과 영향 등을 담았다.

먼저, 「한국 도서관의 아버지 박봉석」을 통해 박봉석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위대한 도서관 사상가로 박봉석(朴奉石, 1905-?)을 꼽는다. “우리나라의 사서 중 업적이 가장 두드러진 사람을 선정하라고 하여도 박봉석 이외에는 별로 생각나는 사람이 없다. 현재 도서관 업무 수행에도 내·외적으로 많은 제한과 어려움이 있는 것을 생각하면, 박봉석이 도서관 요직을 수행하면서 남긴 업적이 얼마나 엄청난고 천재적인가에 놀라게 된다.”

박봉석은 한마디로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기틀을 다진 분이다. 이재욱과 1945년 10월 15일 국립도서관의 문을 열고, 도서관협회를 결성하였으며, ‘도서관학교’를 설립해 사서 양성에 힘썼다.

그는 문헌자료 수집의 중요성을 일찍이 인식했다. 해방 직후 거리에 나도는 “모든 인쇄물, 유인물을 빠짐없이 모으라” 수서과장에게 지시한다.

이렇게 모은 자료를 해방 1주년 전시회에서 내보인다. 또 그는 도서관 업무의 표준화와 협력을 중요시한 사상가다. “그는 건국 초기 문교부 당무자를 설득하여 초등학교 교과서에 ‘도서관’이라는 제목의 교과 내용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도서관 이용교육을 도모하였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6.25때 납북되었고, 교과서의 도서관 관련 내용도 슬그머니 빠졌다.

그래서인지 일반인에게 박봉석이라는 이름은 낯설다. “서울의 성북정보도서관 개관을 준비할 때 주 열람실 명칭을 ‘박봉석열람실’로 명명할 것을 추진한 적이 있었으나 관계 기관장의 반대에 부딪혀 실현하지 못한” 일도 있었다. “당시의 반대 논리는 박봉석이라는 인물의 개인 인지도가 없기에 일반 이용자들의 입장에서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만시지탄이나 2003년 한국도서관협회의 노력과 문화부 추천으로 정부는 그에게 은관문화훈장을 수여하여 그의 업적을 공식적으로 인정한다.

류귀권(劉國鈞, 1899-1980)은 ‘중국 근현대 도서관학의 태산부두’라 일컬어진다. “류귀권은



중국 근현대 도서관 사업, 도서관학 연구와 도서관학 교육발전의 개척자이자 참여자이고, 산증인이다. 그는 이 사업을 힘들게 개척하고 부지런히 추구하여 도서관에 대한 작업과 연구의 거의 모든 전문적인 영역에서 탁월한 성과를”(정희정) 남겼다. 류귀진의 도서관학 교육 사상은 사서의 소양·기능과 그들의 양성에 대한 논의에서 주로 나타난다고 하는데, 1930년대 류귀진은 사서의 책임은 곧 봉사라고 지적하였다.

“대개 서비스 정신은 처음에는 고통스럽고 번거로울 수 있지만 독서하는 사람을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한다면 원성을 듣지 않게 된다.” 또 사서는 최소한 “마땅히 그 일의 성질과 목적인 관리방법을 익혀둬야 한다.” 아울러 사서의 직분으로 이런 점들을 강조했다. “도서관 본관의 내용을 이해해야 한다. 도서관이 있는 지역의 사회상황을 조사해야 한다. 스스로 장단점을 알아야 한다. 열람자에게는 마땅히 상냥한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 풍부한 상식을 갖춰야 한다. 사서는 더욱이 고통을 감내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도서관학의 기본지식을 연구해야 한다.”

문정순은 「인도 도서관학, 도서관운동의 아버지 랑가나단」에서 시야리 라맘리타 랑가나단(Shiyali Ramamrita Ranganathan, 1892-1972)이 인도 마드라스대학 도서관에 가져온 변화의 양상을 요약했는데, 그 첫째가 개가제로의 탈바꿈이다. 랑가나단은 “이용자들이 스스로 도서관에서 필요한 문헌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환경을” 조성했다. 또 그는 마드라스 시 도서관들 간의 상호대차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도입했으며, 주정부에 도서관 관련 예산의 증액을 요청하여 꽤 많은 연간보조금을 받았다. 개관날짜와 개관시간을 점차 늘려 1

년 내내 하루도 빠짐없이 도서관을 개방하고, 하루 13시간 문을 열었다. 참고봉사와 도서택배봉사를 도입했고, 지역주민에게 대학도서관을 개방하기도 했다.

랑가나단의 도서관사상은 그의 도서관학 5법칙에 집약돼 있다. 그것은 다음과 같다.

제1법칙, 책은 이용하기 위한 것이다.

(Books are for use)

제2법칙, 누구에게나 그의 책을! (Every reader his book)

제3법칙, 모든 책에 그것의 독자를. (Every book its reader)

제4법칙, 이용자의 시간을 아껴라. (Save the time of the reader)

제5법칙, 도서관은 성장하는 유기체다.

(Library is a growing organism)

「도서관학의 개척자 듀이」는 박명규와 이성숙이 공동집필했다. 두 사람에게 “멜빌 듀이(Melvil Dewey, 1851-1931)는 오늘날 칭찬과 비판을 동시에 받는 드문 도서관 사상가”다. 멜빌 “듀이는 도서관의 모든 분야에서 개척자로서 기억되고 있고, 그의 영향은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 미치고 있다.” 그렇지만 한편에선 “그의 지나친 기술 중심의 도서관학 교육 사상과 실천은 학문으로서의 도서관학의 철학과 이론의 결핍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는 것이다.

멜빌 듀이의 업적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그는 십진분류법을 창안했다. “십진분류법의 창안은 듀이 업적의 출발점이 되었고 나아가서는 도서관 사서, 교육자, 개혁자의 생애를 결정지었으며 그가 일생 동안 남긴 다른 여러 활동의 원천이 되었다.” 이어 뜻이 맞는 사서들과 힘을 모아 미국도서관협회(American Libraries Association)를 창설한다. 그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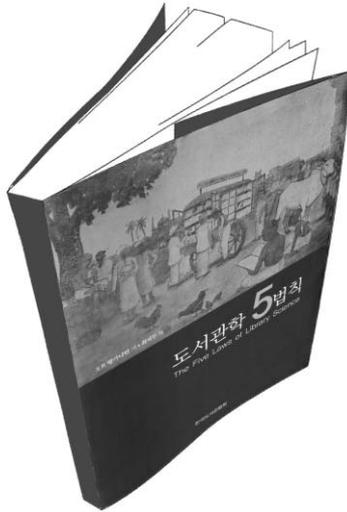
1887년 세계 최초로 설립된 미 컬럼비아대학 도서관학교의 산파 역할을 했다.

「미래의 도서관과 사서직의 비전을 제시한 고먼」(김태경)은 영미목록규칙 제2판의 공동편집자인 마이클 고먼(Michael Gorman, 1941-)을 말한다. 그는 “대학도서관의 사서로, 도서관 행정가로, 미국도서관협회 운영진의 일원으로, 문헌정보학을 가르치는 교육자로, 많은 학술대회와 회의에서 연설가로 널리 알려진 문헌정보학계의 거물이다.”

마이클 고먼은 랑가나단의 도서관학 5법칙에 대응하는 도서관학의 새로운 다섯 법칙을 제시했는데 아래와 같다.

- ① 도서관은 인류에게 봉사한다. (Library serve humanity)
- ②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모든 형태를 도서관 자료로서 고려하라. (Respect all form by which knowledge is communicated)
- ③ 도서관 봉사를 확대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을 지적으로 이용하라. (Use technology intelligently to enhance service)
- ④ 지식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옹호하라. (Protect free access to knowledge)
- ⑤ 과거를 영광스럽게 여기고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라. (Honor the past and create future)

여러 나라 도서관학의 아버지로 평가받는 도서관 사상가들은 공통점이 한 가지 있다. 학부에서 도서관학을 전공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멜빌 듀이는 최초의 도서관학교를 세운 장본인이라 그럴 겨를이 없었다. 랑가나단은



수학 교수였다. 그래서 엉뚱한 생각이 들었다. 로스쿨 같은 라이브러리 스쿨을 만들면 어떨까.

도서관학의 기본원칙

“책을 읽기 시작하면 75년 전의 책이라고는 믿기지 않는다. 도서관의 운영, 장서, 입지, 사서, 참고봉사 등을 논할 때 공감하다가, 도서관법, 장애자, 성차별, 국민교육 등을 논하면

부끄러워진다. 해박한 지식과 직관을 바탕으로 일반화한 설득력 있는 사례는 지금까지의 상황에 정확하게 부합하고 그리고 지금부터의 상황에도 경종을 울린다.”

랑가나단의 『도서관학 5법칙』(한국도서관협회, 2005)은 나 같은 문외한이 보기에 이 책을 옮긴 최석두 교수의 표현이 아주 옳고, 얼마나 적절한지 알겠다. (이 책은 랑가나탄이라 표기하나 여기서 편의상 랑가나단으로 통일) 어느 분과학문의 기본원칙을 제시한 책이 이렇듯 간결하게 핵심을 찌르면서도 풍부한 내용을 담았을까? 과문(寡聞)한 나로서 처음 겪는 일이다.

예전에 어디선가 ‘가장 효과적인 도서검색법은 서가 사이를 천천히 거니는 것’이라는 랑가나단의 혜안을 접했을 때부터 인상적이긴 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차원을 넘는다. 어찌서 도서관학자와 도서관인들이 랑가나단을 추앙하는지 확실히 알겠다. 랑가나단은 인도의 도서관학과 도서관운동을 벗어나 현대 도서관학과 도서관운동의 토대를 다진 사람이다.

도서관학 5법칙은 도서관현장에서 나왔다. 랑가나단은 거의 무에서 마드라스대학 도서관

을 조직하고 구축하는 방대한 작업을 실행한다. 도서 3만 2천여 권을 분류하여 목록을 재작성하고, 콜론분류표와 분류목록규칙을 설계하고 개발한다. 도서관 직원을 훈련시키기 위한 도서관관리매뉴얼을 만든다. 새 도서관건물의 밑그림도 그린다.

“이와 같은 의무적인 업무의 압력이 규범적 원리를 나의 마음속 깊은 곳으로 밀어 넣고 있었으나 그것은 적절하고 유용한 압력이었다. 콜론분류표를 구상하는 모든 단계, 분류목록규칙을 구성하는 모든 규칙, 그리고 도서관관리매뉴얼의 기초가 되는 모든 조항은 그 압력이 잠재의식 속에 감추어져 있던 규범적 원리를 압박하여 발산시키고 빛을 본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이들 업무의 진행과 필요성은 무의식 중에 규범적 원리를 표현할 수 있는 모양으로 구체화하고 있었음에 틀림없다.”

책은 이용하기 위한 거라는 제1법칙은 도서관학의 본질을 꿰뚫고 있는데다 다양한 연결고리로서 기능한다. 어떻게 그런 논증이 가능한지 놀랍기 짝이 없다. 탁월하다. 제1법칙은 역사적으로 쇠사슬의 한 쪽 끝을 서가에 붙들어 맨 책들의 자유롭지 못함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이렇게 쇠사슬로 묶는 것은 도서의 이용보다는 도서의 보존에 더 도움이 되는 일이었음에 틀림없다. 사실, 당시의 도서관은 도서의 이용을 촉진하는 시설로서가 아니라 도서를 보존하기 위한 시설로 생각하고 있었다.”

제1법칙을 도서관의 접근성과 연결 짓는 대목에선 감탄사가 절로 나온다. “사람이 항상 모이는 장소라면 그곳은 바로 도서관의 유력한 후보지인 것이다.” 도서관은 조용하고 한적한 산속보다는 시끌벅적한 저자거리에 들어서게 맞다. 또 제1법칙은 도서관의 이용시간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영국 옥스퍼드의 보들리언

도서관에는 1806년 어느 날 씌어진 메모가 보존돼 있다. 도서관이 닫혀 있어서 화가 난 어떤 학자는 이런 문구를 써서 도서관 문에 붙였다. “화가 미칠진저. 지식의 열쇠를 거머쥐고 스스로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자도 막는 너에게.”

제1법칙은 도서관 직원의 자격과 처우까지 끌어낸다. 그런데 『도서관학 5법칙』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 제2법칙 “누구에게나 그의 책을!”이다. 무릇 도서관의 본령은 이용자가 원하는 자료를 제때에 정확하게 제공하는 것이고, 사서의 임무는 이를 충실히 수행하는 게 아닐는지. (P.14)

